한시간 먼저읽어 열시간 앞서가자

讀書週間

가을은 燈火可親의 계절이라했다。책을읽기에 알맞는 기후인 때문이다。24일부터는 讀書週間。독서주간을맞아가장 가까이하게될 도서관의 성격과의의, 사무처리방법등을 알아보기로 했다。왜냐하면 도서관은 읽을만한 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편집자>

圖書館과 奉仕

<圖書館 司書課長> 崔 嬰仁

圖書館의 업무나 행사는 전부 倖仕라고 볼수 있다。資料의 目錄、선정、收書、分類、整理部門과 書庫의 작성등 館內外의 이용、상담、안내、集會行事Reference業務가 모두 서비스部門이다。그래서 圖書館은 名實共히 學內의 서비스 기관이다。이 서비스機能은 가장 중요한 機能가운데서 圖書館의 業務的이거나, 趣味가 高姿勢여서도 안될것이다。圖書館의 부문인 것이다。본래 社會서비스는 圖書館은 學生, 敎授를 대상은 學生, 敎授들이다。大學全體 圖書館의 이로 되어있으나 Give만 이용자에 대해 Give and take」를 하지않는것을 意味한다。利用者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구속하는 일이 없이 이용을 제공해야할것이며 職員의 應待가 敎養의 場이라고할수있다。敎授에게는 學生에게는 學修와 敎養의 場이라고할수있다。

圖書館의 學修와 敎養의 場에 圖書館은 自由스러운學內의 自主的 自己敎育機關이라할수있다。

이러한 利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圖書館은 環境과 設備를 정비하고 자료를 풍부히 蓄積하여 어느때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利用者를 援助하고 있다。

大學圖書館은 學校라고 하는 敎育機關內의 設備 育計劃의 일환으로서 敎 해지고 있으며 運營은 이용에있어서도 敎育目的에 合致해야할것이다。그러므로學生는 利用態度와 資料의 蒐集、이용의 技術을 습득해서 奉仕者와 利用者 相互의協助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이용자들이 대출한圖書를 破損 紛失한다든가 貸出期限이 지나 返納書促을 해도 반납이행을아니한다든가 조용해야할閱覽室을 休憩室로 高聲放談을 착각하는 등등의 規則을 排除하게 하는 요인은 해야만 할것이다。學校圖書館의 機能이 서비스機關이 同時에 指導機關이 할것이다。

定選書圖과圖書館大學

<圖書館 司書課> 朴 均尙

현대처럼 圖書氾濫時代에 살고있는 우리는 엄청난 맘모스圖書群앞에 압도당하고있다。이처럼 一生을통해서도 다읽을수없는 그부한한 現存圖書와 새로이 쏟아져나오는 新刊圖書를 圖書館에 전부 所藏한다는것은 전연 불가능한것이며, 또한 그렇게 所藏할 필요도없는 것이다。현대사회조직은機能別로 되어가고 그기능별로 존재하게되므로 각圖書館은 그독적과 기능에 따라서 圖書館을 그종류와 질과양적인면에서 적절히 선택 한필요가있다。大學圖書館의 기능은 大學의목적에 敎授·學生의 研究調査活動이 가장중대한 기능이므로 그것을 정보센터의 기능은 그것을 원조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할수있다。研究調査 활동은 철저하게 情報사료의 利용과 수집위해서는 풍부한제공과 고속도의 利用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정된 圖書館 入藏算을 가지고서 대량으로 산출되는 圖書中에 必要로하는 圖書를 어떻게 蒐集·蓄積하는가 문제인것이다。부족한 豫算으로 圖書를 구입해야하므로 예산의낭비를 막을수있는 보다효율적인 圖書購入政策이요구된다。그리고 圖書館이요 인포메이션센터 제공하는서비스를위해 圖書를 선택해서 利用者(교수·학생)들의 요구에 응하기위해서는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하지라도 먼저 圖書館은 圖書選定에관한 어떤원칙이 서있지않으면안된다。圖書選定原則이 없을 경우에는 이용자는 유리된 폐단뿐이며 폐단뿐이 되어도 이용되지않는 책들이 書庫에 가득이스러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圖書館蔵書는 마치 인체의 血液循環처럼 늘 바쁘게 出納되고 이용됨으로써 敎授·學生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살아있는 圖書館」이되어야한다。그러므로 選定原則이 없는 圖書館의 機能을 마비시키는 큰 要因이 된다。

收書는 먼저 藏書構成을 조사하고 전체의 目標를 파악해야 잡혀서 있는가를 파악하며, 가장 약한 분야는 어디인지를 알아 보는 것이다。그리하여 전체적인 藏書의 바탕으로 교려해야만한다。또한 藏書의 質과 量을 分野別로 파악해야한다。다음으로 圖書選擇業務 基本問題는 인내 선택의 評價 「圖書의 評價」로서 가장 곤란한 문제라 할수 있다。일시적인 價値밖에 없는 것 보다 되도록 永久的價値에 중점을 두어야겠지만 가치있고 권위있는 圖書를 선정한다는 작업이 그렇게 容易한일은 아니다。惡書가 良書를 驅逐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더욱 곤란해 진다。

<16만여권의 장서를 비치한 본교 중앙도서관>

도안 되겠지만 司書가 選擇道具만을 전적으로의존한다는 것도 삼가야 되겠다。人間의 著作을 평가하는 評價는 이상 거기에는 秤識의 水準, 經驗, 趣味, 學問的 背景, 趣味, 情實등 독일한 의차이에 따라서 圖書에 대한 평가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시대에 있어서 평가나 선택에 있어서는 지위를 점한 圖書가 반드시 永遠性을 지고서 후세에 傳統이되며, 人類의 복지나 文化의 進展에 기여할 것인가도 의문이다。그러면 圖書選擇價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할 것인가?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평가의 絶對的 基準이 없으므로서 第二義的인 次善策으로서 보편적으로 검토된 事項으로 많은 어떤 根據를 가져야만 한다。

敎授·學生의 研究調査活動이 가장중대한 기능이므로 이 기능을 원조하는 서비스기관, 정보센터의 기능은 그것을 충실히 지원하는 것이다。

敎授에게는 敎養의 場이라고할수있다。

敎育과 學修의 場에게 學修와 敎養의 場이라고할수있다。

圖書館은 自主的 自己敎育機關이라할수있다。

利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圖書館은 環境과 設備를 정비하고 자료를 풍부히 蓄積하여 필요한직원을 배치하고 利用者를 援助하고 있다。

大學圖書館은 學校라고 하는 敎育機關內의 設備 育計劃의 일환으로서 敎 해지고 있으며 運營은 이용에있어서도 敎育目的에 合致해야할것이다。그러므로學生는 利用態度와 資料의 蒐集、이용의 技術을 습득해서 奉仕者와 利用者 相互의協助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이용자들이 대출한圖書를 破損 紛失한다든가 貸出期限이 지나 返納書促을 해도 반납이행을아니한다든가 조용해야할閱覽室을 休憩室로 高聲放談을 착각하는 등등의 規則을 排除하게 하는 요인은 해야만 할것이다。學校圖書館의 機能이 서비스機關이 同時에 指導機關이 할것이다。

出帆…69학년도 總學生會 살림꾼 總·副會長 프로필

"念專 에 천실계計"

□鍾元張 長會總□

『兩肩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놓은 것 같다』고 말문을 여는 69학년도 總學生회장 張元鍾(식공과 3년·22才)군。

적은키에 으젓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張회장은 지난번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못이룰번 했으나 결국…』이다。

東國을 위해 일해보겠다는 굳은 信念은 張회장을 못내 괴롭혔다。네차례의 飜意끝에 결국 立候補하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것。

그는 작년도 총회장인후보자 K군과 협조가 多大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금년도에 입후보했다가 탈락된 C군의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은 현단계에서 日可日否한들 믿지않기에, 張군은 자기의 設計를 말하기전에 실천으로보이고 싶다고。

그는 東國의 거대한 「馬班」를 끌기 위해서는 『馬夫 장원종 하나로는 힘들다』면서 全體學友의 채찍질을 거듭강조한다。

張회장은 예년의 총회장과는달리 집행부서의 部長人選에는 ROTC학생을 제외한 適所에 전문적지식을 가진 학생을 기용할 방침이란다。

이제 지난날의 학생회에 대해 불만·불평을 털어놓기전에 앞으로의 계획에 전념하고 싶다고。

<서울出身·中央高校卒>

『싸우기 전에는 정대 옳지않는다』를 생활해 왔으며 이번 출마도 그런정신으로 결정했다고 서두를꺼내는 신임총부회장 申潤桓(行·20세)군。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얼굴이 제일먼저 아른거린다』는 미소를 머금은 申군의 천인상은 전형적인 착실형。

아무렇게나 쓸어올린 머리하며 단정하게 착용한 뺏지에서 그의 소박성이강하게 풍긴다。『학교가 발전하려면 동창회와의 상호유대가 절실히 요청되며 모든 문제는 내화합들을하여 해결하는정신이 배양돼야한다』고 전제, 이런謙問題해결을 위해 「동창회간부연방, 單大회장경시 경향없소」를 목표로 삼고 부딪힌 장애를 이번

「카라마조프 家의 兄弟들」산책

『기록된 一切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오직 자기의 피로 적은바 그것이다。피로 적어라。 그러면 그대는 피가 청신임을 알리라。』

他人의 피를 이해한다는것, 그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라고 니체는 神의 死亡宣告狀의 『독서와 著述』에서 말했다。이것은 곧 릴케의 〈生命과 맞바꿀수있는 씀〉과 같은말이다。랄프·왈도·에머슨의 天才論의 〈비밀한 심장을 스쳐가는 微光의 번쩍거림〉도 니체의 〈피〉와 릴케의 〈生命〉으로서의씀〉의 隱意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9세기가 낳은 3大 作家中 도스또옙스끼는 뚜르게네프보다 3歲 年長格이다。 7年 앞서 탄생했다。이同時代의 세作家는 그러면서도 19세기 서구 사상의 흐름을 대조를 보이고 있다。그것은 論外다。

표를 미하일로비치 도스또옙스끼의、이른바 엣센스는 그의 處女作 〈가난한 사람들〉에서 예시되었다。젊은청년 마카알은 라스코리니코프로、무이쉬낀으로、스타브로긴으로、그리고 알료사로 발전해갔던것이다。그들은곧 도스또옙스끼의 총화로써 그의 믿음이었고 否定이었고 그 强靭한 人間的인 懷疑였다。

도스또옙스끼만큼 자기의 소설속에 自畫像을차 지접게 삽입해낸작가는없을 것이다。더구나 그렇게 성실히 삽입해낸 작가는。 그것이 人間의本質로써의 自畫像으로 — 말하자면 作者의 人生觀、哲學·思想을 含有한때 — 形象화 될때 그것은 곧 니체의 저〈피〉의 作業으로 어울릴지 않을까? 우리는 그 實例를 어네스트나 스땅달 그리고프로벨이나 로렌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그러나 누구보다도 도스또옙스끼에게서 전율할만치 明確하게 확인할 수있는 것이다。그런데 그것이 윤배반적 양상으로 僞裝되어있는 여기에 있는것이다。 그 영원한 매력은 이른바 대단한 독자를 어리둥절하게 한것이다。

그 영원한 매력의 〈키홈〉을 살펴보자는것이 小稿의 목적이다。그의 未完成品 〈카라마조프家의 兄弟들〉에서 말이다。

카라마조프家의 兄弟들에 帝政 러시아의 여러 계급에 속하는 다양한성격의 인물이 등장한다。그 주 요인물은 카라마조프家의 家長、好色漢인표돌과、禁欲的인 알료사、知性的 超人思想을 가진 이반、善惡과 魔、神性의 渦中에서 自我分裂된 드미트리 그리고 憎惡의惡漢인 표돌의 私生兒인스메르쟈코프、그리고 보조인물로써 聖者、조시마장로、世俗的이고 관능적인 그루셍카와 白痴같은 리자베타가 등장한다。

카라마조프 家族은 표돌과 그 세 아들 드미트리、이반、알료사 — 이 세 형제의 관계가 서술된다。 그 중 알료사는 조시마 장로의 제자로서 믿음의 세계를 그리며 한잎 또한 잎 떨어진다。낙엽은 다음해의 더욱 알찬 잎을 위해서 이별의 세례나데 鄕愁에 젖게 된다。

낙엽을 태우는 가을밤에서만 느낄수있었던 感慨 憤慨이다。 매마른 잎들이 파란 공간속으로 긴 하얀 원을 그리며 한잎 또한 잎 떨어진다。낙엽은 다음해의 더욱 알찬 잎을 위해서 이별의 세례나데를 전주하고 보면、우린 過去의 그 因果는 무엇이었을까? 人間의 實存에의 關欲한 키엘케골이나 〈파우스트〉와 같았다。

그것은 정말이지 지겹고 오랜탐색이었다。超人의 스코리니코프、무이쉬낀의 꼬뜰의 실현에서 좌절된라 스코리니코프、다시 배회의길을떠난 惡靈의 變型의 論者스타브로긴의 無神像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가의 확인은 아직 미결된상태였다。主題가 다른데로 散見되는것이다。

드미트리는 아버지의殺意를 의식한다。그는 殺敵에게 友情을는꼈다〉 (惡靈 에서) 다음 이반에게서는 오 타난다。

다음 그는 神을 회의했다。 어째서 하느님은 人간의 罪한 인간의 고민을 그냥 보고만 있는가? 어째서 불의와 나망과 잔인을 허용하고 있는가? 그는 神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惡靈에서)

이번은 神에게 도전한다。神의 잔인한 律法은 인간의 욕망과對地된다。 이 지셩적인 반항아는自己發을 일으키고 마음의 갈등과 信·不信의틈 사이에서 〈良心이 다 뭐냐? 내 스스로 그걸만 들었다。그렇다면 어째서 내자신을 괴롭히는가? 그 저 습관때문이지。7만년이나 해묵은 보편적 습관때문이다。그렇지만 이 습관에서 벗어나 神이되는 거다。〉라고 超人에게 길을 장망한다。〈도스또옙스끼를 발전한 것이다。 그것이다。낡은 관념은 내게는 스땅달을 발견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었다。 그야말로인 간심리에 관해서 내게무엇을 가르쳐준 유일한사람이었다。〉니체가 도스또옙스끼를 자기의 스승이라고。 여기에있어 도스또옙스끼는 영웅적인 사명을 가졌던 것이다。

그들은 神을 회의했다。 그들은 신앙의 獨自性을 가진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없다〉라고。

여기까지의 세 主人公 무엇을 의미한는가? 작자의 포인트는 어느쪽으로 直向해있는가?

한데 우리는 「카라마조프家의 兄弟들」의 卷頭獻辭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장24절」〉를記憶할 필요가있다。이것은곧 永眠 10년전에 그는답을 말했다。

〈이것은 永遠한 男便〉의 벨리냐니노프도 말했었다。〈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자혜에서가 아니라 위대한사랑에서 생긴다〉고。

알료사는 그가 꿈꾼이상의 像이었다。그는 도스또옙스끼의 總和요 救援이다。도미트리가 육중종교에의 쓴 〈地下의 頌歌〉는 넘어선 人間을 꿈꾸던이 반은 그의 分身 스머르자코프의 자살이 허무에 의 奈落이된다。

우리는 구원에의 길로 접어든 알료사만으로도 — 그 續編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도스또옙스끼의 종교에의 갈구이며 神을 향한 조이스는 무의식 世界를 導入했다。그리고 兩次大戰을 내면져진 인간을 인간심리에 관해서 내게무엇을 가르쳐준 유일한사람이었다。〉니체가 도스또옙스끼를 자기의 스승 라고。 그들은 곧 도스또옙스끼는 영웅적인 사명을 가졌던 것이다。도스또옙스끼는 제1편 제3장에서 샤또프의 입을 통하여 〈만일、전 세계를 정복 하려고 원한다면 먼저 자기자신부터 정복하도록해라〉고 말하며 1871年 마이꼬프에게 보내는 書翰에서는 다음과 같이 술회한 적이있다。〈자기 자신으로서의 獨自性을 가진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없다〉라고。

여기까지의 세 主人公 무엇을 살펴왔다。이것은 곧